

장흥 찹쌀 전문도정공장 준공... “고품질 찹쌀 산업화 박차”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 고품질 찹쌀 산업화 기반 마련 2021년~올해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35억2200만원 투입

장흥군은 17일 용두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지역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남진 장흥 찹쌀 전문도정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찹쌀 전문도정공장은 장흥군이 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은 읍면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자원을 특색사업으로 발

굴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0년 장흥군은 ‘정남진 장흥 찹쌀 주산지 활성화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35억 2200만원이 투입됐다.

1차년도는 찹쌀 브랜드(가치지은) 개발 및 연구시설, 기계장비구입, 2차년도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저온보관시설 신축이 진행됐다.

3차년도 교육컨설팅 및 찹쌀 전문도정시설 등을 구축하여 고품질 찹쌀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장흥군은 시군 단위 전국 최대 찹쌀 생산지에 찹쌀 전문도정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공, 포장, 저장시설 등이 구축됨에 따라 차별화된 고품질 찹쌀 생산과 가공 제품 판매 활성화의 길도 열렸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동, 장평지역 주력 품목인 찹벼, 잡곡, 친환경벼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6차산업화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 신지 명사십리에 모래조각 작품 ‘눈길’ 해양치유 상징·인어공주의 성·방글이 등 10월 9일까지 전시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인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모래조각 작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모래조각 작품은 명사십리의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인어공주의 성, 해양치유를 상징하는 천사와 돌고래, 완도군의 소통 캐릭터 ‘방글이’를 배경으로 완성됐다.

모래조각 작품은 국내 최고 모래조각 작가인 최지훈, 홍성열 작가와 중국 장저우 작가가 5일 걸쳐 만들었으며, 모래 등 자연 친화적 소재와 작가들의 뛰어난 기교로 만들어져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은 오는 10월 9일까지 전시될 예정

이다.

한편 모래조각 작품이 설치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부여되는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을 5년 연속 획득한 명품 해변이다.

특히 고운 모래와 모래가 파도에 쓸리면서 내는 소리가 심 리 밖까지 퍼진다 해서 명사십리라 부른다.

군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조각 감상과 사진 촬영 등 추억거리를 하나 더 안고 가시길 바란다”면서 “해마다 새로운 볼거리, 체험 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을지연습...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등 훈련

오늘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진도군이 21일부터 24일까지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으며, 21일(월) 연습 첫날 오전 6시 비상소집을 시작

로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전시 직제 편성 훈련 ▲기관·소산·이동 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 실제 전쟁 상황을 고려한 공직자들의 전시 임무 숙지와 총무사태별 조치사항 등의 처리를 위해 전시 예산 편성·운용, 북 핵 위협 시 대처방안 등 전시 주요 현안 도의를 진행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오는 22일(화) 육군 제8539부대 1대대, 진도경찰서, 진도소방서 등 5개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한 테러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한다.

23일 오후 2시부터는 적기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진도읍사무소에서 실시하고, 24일(목) 연습 마지막 날에는 2023년 을지연습 종결 보고 등 훈련 강령을 끝으로 연습을 종료한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녹색한우농가 한마음 워크숍 개최

강진군 녹색한우농가협의회가 지난 17일 강진안도축협 대회의실에서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계 워크숍을 갖고 강진한우 명품화와 회원 간 화합을 다졌다.

녹색한우농가협의회는 전남 서부권 등 12개 시군의 8개 조합이 회원으로 참여해 지역단위 농가협의회를 통해 회원 간 화합과 한우 품질향상,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강진군 녹색한우농가협의회는 총 170명이 가입돼 활동중이다.

이번 하계 워크숍은 회원 및 관련 단체들의 상호 화합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전남대 선상수 교수를 초빙, ‘한우산업의 실상과 미래전망’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강진군 녹색한우농가협의회 강종원 회장은 “소값하락, 금리인상, 높은 사료값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한우사육 농가들의 화합을 통해 축협과 함께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진원 강진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역의 핵심 소득산업인 한우의 육질등급을 높이고 경영비를 낮춰 농가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고구마는 역시 해남고구마” 명품 해남고구마 본격 수확

전 국민이 사랑하는 영양 간식, 해남고구마 수확이 한창이다.

해남은 연간 3만 6,000여톤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최대 고구마 주산지로, 550여 농가에서 2,200여ha를 재배하고 있다.

올해는 긴 장마로 수확이 다소 늦어진 편으로, 8월 초부터 밭고구마인 진음미 품종이 주로 출하되고 있다.

해남고구마는 시기별로 밭고구마와 풀고구마, 호박고구마 수확이 11월까지 이어진다.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고구마는 지리적 표시농산물 42호로 등록되어 최고 품질의 고구마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인기 농산물이다.

해남고구마는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https://www.hnmiso.com>)와 농가 직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해남미소에서는 햇고구마 외에도 고구마 말랭이, 아이스 고구마 등 고구마 가공식품도 상시 판매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